

내일의 트렌드를 발견하는 공예 축제

<2019 공예트렌드페어> 리뷰

<2019 공예트렌드페어>가 2019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렸다. '공예'를 주제로 한 국내 최대의 페어인 만큼 나흘간의 공예 축제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이 쏟아졌다. 주관 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KCDF)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자체 행사장을 줄이고 참여 작가들을 위해 부스를 더 내주었다. 한편에서는 작품 유통을 강화하는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했다. <공예트렌드페어> 리뷰 기사를 통해 2020년의 시작과 다가오는 트렌드를 예측해 봐도 좋을 것 같다.

글 윤송희 | 사진 KCDF, 김현희 516 스튜디오

주제관에서 선보인 안나리사 일라스탈로(Anna Rissotto)의 유리 향아리 작품

중첩된 아름다움

주제관과 쇼케이스관은 끝없이 펼쳐지는 작품의 물결 속에서 공예 트렌드를 한눈에 보여주는 요약본 같았다. 먼저 주제관에서는 다양한 전시 매체로 공간각적 확장을, 쇼케이스관은 인테리어적 요소로 공간 레이어를 겹쳐 상상력을 자극하는 식이었다. 덕분에 연단 위에 올라선 작품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더욱 가까워서 강렬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관객이 작품을 향해 다가갈 때 그 형태와 소재를 탐구할 수 있도록 전시연출에 신경썼다.

맥락 안에서의 강렬한 경험

주제관 <Object, Objects...>

"페어에 속한 부스가 아닌 단독 미술관처럼 수준 높은 전시였다" "새로운 공간 경험을 통해 익숙했던 작품이 달리 보였다" 등 현장에서 쏟아진 주제관의 감상평으로 살펴보면 이번 전시에서 가장 강렬했던 이미지는 바로 작품과 공간의 긴밀한 호흡에서 만들어진 듯하다. 주변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연단 위에 작품을 하나씩 올리는 보편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삼차원 공간을 기본

조건으로 두고 그 안에 소리, 조명, 영상 등을 조율해 색다른 경험을 만드는 콘셉트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최주연 주제관 감독이 거듭 강조하듯 작품은 '맥락' 안에 존재하고 생명력을 이어간다는 정신을 담았다. 전시 서문에서 밝힌 대로 이번 주제관의 관람 포인트는 단독 사물이 아닌 장소에 놓인 맥락 속 관계를 찾는 것이었다. 그래서 작가마다 오롯이 공간 하나씩을 배정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여기서 이야기란 제작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적인 방법론이다. 허명숙 작가의 방예선 작품과 함께 그 뒤로 사계절 동안 반복적으로 율힐을 더해가는 과정의 동영상이 함께 설치됐



다. 비의 흔적을 도자에 기록하는 작업을 보여준 광혜영 작가의 방에선 제작 방식 그대로 빗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스피커를 설치해 작품 제작 과정을 상상하도록 했고, 신명덕 작가의 방에서는 나무를 때리는 정 소리가 웅얼이 울려 퍼지도록 했다. 관객은 주제관 입구에서부터 방마다 표시된 순번을 따라 어둡고 밝고 좁고 넓은 방들을 지나며 작품 하나하나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다. 다채로운 매체가 삽입된 덕분에 공간 경험은 한층 풍요로워졌다. 제작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 말고도 작품 조형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 시선을 잡기도 했다. 최근식 작가의 작업에 조명 빛을 활용해 벽면에 아름다운 패턴을 그려내거나 류연희 작가의 작품 수납 점을 정교하게 만든 선반 위에 쌓는 식이었다. 작품과 빛의 관계, 작품과 작품의 관계 등 끊임없이 연결되는 이웃의 존재들을 뒤집어보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작품을 프레젠테이션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연출한 시도는 디자인적으로도 강렬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됐다. 완성도 높은 공간을 구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작가와 기획자 간의 끈질긴 스킵십 덕분이다. 작가는 기획자의 의도에 긍정했고, 기획자는 작가의 요구를 세심하게 구현했다. 금속공예가 류연희는 “내가 꿈꾸던 모습대로 전시장에 구현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처럼 함께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고민한 결과가 관객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 1 도자 위에 빗물을 흘려보내 우연한 패턴을 완성한 광혜영 작가의 작품
- 2 심유 위에 옷감을 반복적으로 입혀 시간의 겹을 보여준 허영숙 작가의 작품

최주연 주제관 감독

“감사하게도 작품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해 준 관객이 많아서 목표한 성과를 이룬 것 같다. 사실 이전까지의 주제관 형식에서 꽤 벗어난 시도였기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 기획을 긍정적으로 믿고 따라와 준 작가들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더불어 올해 (2019년) 페어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다. 자기만의 시각으로 창의적인 작품을 전개하는 작가가 제아에 정말 많다고 느꼈는데, 기획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다음에 이어지지 않았지만 탐나는 이야기 기록했다고 생각했다. 공예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획자도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



감독 최주연(윤현상재 부사장)
 참여 작가 허영숙(옷질, 섬유), 광혜영(도자), 신명덕(목조각), 신혜민(섬유), 최근식(목조각), 한신주(대나무), 안나리사 알라스탈로(유리), 최정유·조규형(삼베), 류연희(금속), 김계숙(동선, 금박), 김혜정(도자)

공간 디자인 최주연(윤현상재 부사장)



쇼케이스관 전시물은 부딪힐 수 있는 공예품 위주로 선정했다.

일상 걸로 온 공예

쇼케이스관 (시간의 잔상)

쇼케이스관은 <공예트렌드페어>에 참가한 작가들의 전체 작품 중 감독의 시선으로 엄선된 작품을 위주로 보여주는 전시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예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장소다. 이번 쇼케이스관 감독을 맡은 김상윤 리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작가의 시간이 녹아든 작품을 보여주자 한다고 말한다. 반복적인 노동을 통해 작품 하나에 작가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전달하고 싶었다. <시간의 잔상>이란 제목 역시 같은 콘셉트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작가의 ‘시간’이 만들어낸 흔적이 곧 작품이란 뜻이다.

공간 계획에서는 중첩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신경을 썼다. 독재를 활용해 울타리처럼 3개의 공간으로 나누고, 목재의 불빛이를 달리해 레이어가 서로 겹쳐 보이는 효과를 의도했다. 마치 등고선이 중첩된 모습처럼 보이길 바랐는데, 역겹의 시간에 걸쳐 지형이 만들어지듯이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활동 역시 수많은 시간이 흐르는 일이란 걸 표현하라는 의도였다. 빛의 상원색인 빨간색, 파란색, 녹색을 공간의 주색으로 삼고 비슷한 색깔 톤을 가진 작

품들로 분류해 전시했다.

이번 쇼케이스관 작품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상에서 걸어가다가 이 두고 쓸 수 있는가’였다. 오브제 같은 작품보다는 손길 닿는 곳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관객이 느끼길 바랐다. 화병, 찻잔 등 보편적으로 누구나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아이템이 많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김상윤 쇼케이스관 감독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트렌드를 무분별하게 좇기보다 자기 취향대로 소비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때 공예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낼 좋은 도구라고 본다. 나는 공예품이 일상에서 흔하게 쓰이는 모습이야말로 문화적으로 우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공예품 위주로 선정해 전시를 꾸렸다. 의복류, 침구류, 기구류에서도 좋은 작품이 많은데 설치상의 문제로 인해 쇼케이스관에 들어올 수 없어 아쉬웠다. 페어를 돌아보고 나날이 성장하는 공예 수준에 또 한 번 놀랐다. 솔직한 마음으로 내 업에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이 많았다. 더 많은 분이 이런 아름다움을 집 안에 초대하길 바란다.”



감독·공간디자인 김상윤(리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